

‘원팀’ 광주시·전남도, 반도체 인재 양성 총력

지역 대학·교육청과 ‘반도체 인재양성위원회’ 출범
교육·연구시설 통합운영 공동캠퍼스 등 협력 강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육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팀’을 이룬 광주시·전남도가 각급 교육기관과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 반도체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광주시·전남도는 6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창환 전남도정무부지사, 양향자 국회의원, 정성택 전남대 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반도체 인재양성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인재양성위원회는 지역 인재 양성을 책임지는 각급 교육기관 인사로 구성됐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시·도 교육감, 광주대·남부대·동신대·목포대·순천대·조선대·호남대·한국에너지공대·조선이공대·광주폴리텍대 등 지역 대학 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쟁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석박사급, 학사급, 실무급,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인재 양성 방안과 교육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정성택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인재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미래의 먹거리, 반도체산업을 주도할 핵심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해 국가 산업과 지역 사회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맞춤형 교육 모델을 개발해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양성위원회는 앞으로 대학·학과별로 흩어져 운영되는 커리큘럼을 한데 모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수진, 교육시설, 연구시설 등을 통합 운영하는 공동 캠퍼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6일 오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광주·전남 반도체 인재양성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왼) 지정, 반도체 인재 양성 허브 구축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지자체·대학·교

육청·기업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등 지역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할 방침이

다. 출범식에서 양향자 국회의원은 “인재

육성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유무”라며 “지역 출신 훌륭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수도권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우수한 지역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탄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또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교통, 문화, 6개 정주 여건이 함께 갖춰졌을 때 비로소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인재 양성 정책도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시장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산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지하기 위해 광주·전남이 원팀으로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문 인력 확보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인 만큼 출범식을 계기로 반도체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광주·전남은 우수한 여건을 갖춘 반도체 특화단지의 최적지”라며 “반도체 전문 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해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재정·박선강기자

“미래차 경쟁력 확보 위한 전략 세우겠다”

姜시장, 월요대화...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미래차 경쟁력 확보와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전남 시청에서 월요대화를 열고 유관기관·산업 관계자·전문가와 ▲광주 자동차산업 현황·발전 방향 ▲모빌리티 산업 동향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 시장을 비롯해 임현택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미래전장연구센터장, 김상민 광주테크노파크 미래사업 기획부장, 유창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 박사, 노희욱 (세광주그린카진흥원

원 팀장, 김요수 광주연합기술지주 대표, 내용은 은혜기업 대표, 김영래 호그린 에어 이사,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염방열 시 인공지능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 자동차산업 현황에 대해 연간 72만대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유일 2개의 완성차 공장을 보유한 점, 광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43%를 차지할 만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인 점을 내세워 급변하는 미래차 시장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희욱 (세광주그린카진흥원 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친환경 특장차, 소형전기차 등 미래차 신산업 분야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전환교육 등을 통해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나용근 은혜기업 대표는 “광주 부품업체들이 주로 차체, 새시, 의장 등 미래차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전기자동차 장점은 경량화를 통해 연비를 올리는 것이고 업체는 기술 개발을 통한 가벼운 차체를 생산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 된다”고 밝혔다.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창호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박사는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이후 준공까지 최소 7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산단조성에는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외 중견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가속화 등 자동차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진행 중”이라며 “산업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현재 시점에서 광주가 어떤 비전을 갖고 미래차 전환을 주도할 것인지 고민하고 신속히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11월28일 지역 산학연이 대거 참여하는 ‘광주 모빌리티 산업 혁신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미래차 선도 도시 광주를 위한 첫 관문인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선강기자

조경태 “한동훈 차출,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

“당 대표 되면 2024년 총선 호남서 국회 3석 이상 당선시킬 것”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당대회 차출설’에 대해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 대표 후보로) 나오고 싶은 사람은 나와서 공정한 경쟁을 하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수도권에 호소력이 있는 인물이 차기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수도권 대표론’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영남과 수도권 이 싸운다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며 “당원들이 선택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경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주요 인사들과의 판저 회동을 놓고 ‘윤심’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그는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던 정치적 행위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타락한 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내려놓게 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겠다”며 “당 대표가 되면 차기 총선 때 호남지역에서 3석 이상 당선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시의회, 오늘 방직공장 부지 개발 토론회

현대백화점그룹이 전남·일신방직 터에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 계획을 제출한 가운데 해당 부지 개발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7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시의회 주최로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전남·일신방직 공장터 개발과 관련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의 경과 보고에 이어 소경용 ㈜휴먼스홀딩스 P FV 대표와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이 각각 발제를 맡고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 박홍근 포유건축사무소 대표, 정은채 전남일신방직 이전 주민협의체 공동대표, 이기훈 전일방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박선강기자

이철 도의회 경관위원장, 연륙·연도교 공로 공무원에 감사패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6일 오후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상훈 전남도 건설교통국장과 정운수 도로교통과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

이번 감사패 전달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지방도 806호선 지정과 완도 소안

도-구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한 공로를 인정해 이뤄졌다.

올해 2월 지방도로 승격된 806호선은 해남 송지면-완도 노화읍-완도 소안면을 잇는 25.7km에 이르는 구간이다.

이번에 법정 도로로 승격돼 예산 확보

가 가능해지면서 소안도-구도 간 연도교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전남도와 완도군이 각 700억원 총 1천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철 위원장은 “완도는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교통, 의료, 교육 등에서 육지보다 불편한 점이 많아 주민들은 항상 연륙·연도교가 건설되기를 원했다”며 “이상훈 국장과 정운수 과장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에 숙원 해소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물절약 실천 캠페인

광주·전남지역 저수량 고갈위기 시·도민들의 물절약 실천 절실



물절약 홍보 동영상

생활속 노력으로 최대 40%까지 수도물 절약이 가능합니다

시민 1인당 최소 20% 물절약을 실천하면 내년 장마시작(6월초) 전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최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생활속 물절약 실천방법

수도밸브 수압저감



20~40% 절약가능
세탁기·샤워기·발브, 세면대, 싱크대 하부 밸브 조절
(열림) 왼쪽회전 (잠금) 오른쪽회전

샤워시간 절반 줄이기



50% 절약가능
1분당 12L 물절약 가능

빨랫감 한번에 세탁하기



30% 절약가능

양치컵 사용하기



70% 절약가능
1회 5L 절약

양변기 수조
필밸브 조절 및 물병 넣기



20% 절약가능
필밸브(물통) 내리기
1.8L 물병 1~2개 넣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60% 절약가능

광주시민(1인) 1일 수도물 사용량 약 300L

물절약 실천으로 최대 40% 절감 가능